

# 보도해명자료

('17. 3. 7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경제살린다는 '원샷법'...알고보니 삼성뇌물과  
빅딜 ('17.3.7, 노컷뉴스)

## 1. 기사내용

- 이른바 '원샷법'이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간 '검은 거래' 속에 통과된 정황이 특검 수사결과 드러났음
- 지난 6월에는 원샷법 첫 적용 기업으로 박 대통령의 사촌형부 기업으로 알려진 동양물산기업이 선정돼 저금리 등 각종 특혜를 받으며 경쟁사를 손쉽게 인수

## 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- 기업활력법은 과잉공급업종의 원활한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어 경영권 방어 수단과는 무관하며,
  - 동 법 발의 당시('15.7.9.)에도 경영권 승계 등을 위해 대기업이 기업활력법을 악용할 가능성을 방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은 애당초 기업활력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음

### 대기업의 기활법 악용 방지를 위한 장치

- ① 과잉공급 분야 기업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
- ② 특혜시비를 최소화하고 공정성 확보를 위해 민관합동 심의위원회 운영
- ③ 사업재편의 목적이 경영권 승계 등인 경우 승인 거부
- ④ 승인이후 경영권 승계 등이 판명될 경우 사후승인 취소 및 과징금 중과

\* 이 중, ①, ②, ③ 내용은 법률 제정안 발의시점('15.7)부터 포함되어 있었음

- 또한 기활법 시행('16.8.13) 이후 지금까지 삼성이 동 법을 활용해 혜택을 받은 바도 없음

- 동양물산기업 건은 국회(여야 3당)가 추천한 위원들이 참여하는 '사업재편심의위원회'가 기활법상 승인요건만을 고려해 심의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,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특혜를 준 바 없음
- 관련한 상세 내용은 과거 既 배포('16.10.6)한 보도해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람 (별첨)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정책팀 이한철 팀 장 (044-203-4830)  
김태현 사무관 (044-203-4831)



Ministry of Trade,  
Industry and Energy

## 보 도 해 명 자 료

('16. 10. 6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김관영 “‘원샷법 1호기업’ 대표 부인은朴대통령 사촌”  
(10.6, 연합뉴스 등)

### 1. 기사 내용

- 대통령 친인척기업인 동양물산기업에게 산업은행 자금 160억원을 지원하는 등 특혜 의혹

### 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- ① 동 사업재편은 '16년 승인 신청 이전에 이미 주식매매계약서를 체결(동양-동국제강 등 주주간, 7.26)하는 등 사업재편의 주요사항에 대해 이해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8.13일 기활법이 시행됨에 따라 해당기업이 자발적으로 신청한 것임
- 동양물산기업은 산업부에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신청하기 전부터 산은과 협의를 진행하였고, 산은은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심의 이전에 기활법 승인과 무관하게 상업적 판단을 바탕으로 자체 여신 심사 절차에 따라 대출을 결정하였는 바 특혜가 아님
- ② 동 건 승인은 국회에서 추천한 위원들(여야 3당 추천 인사)이 참여하는 사업재편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,
- 동양물산기업의 사업재편계획 승인은 농기계 업종의 과잉공급 상황 등 기활법상 승인요건만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으며 해당기업과 특정인사의 친인척 관계는 승인요건도 아니며 위원회에서 논의된 바도 없음